

속 기록

1. 회의명 : 제360차 위원회 전체회의

2. 일시 : 2023. 7. 28(금) 14:01 ~ 17:27

3. 장소 :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4. 출석위원 : 정병국 위 원 장

김진각 위 원

배은주 위 원

서승미 위 원

이훈경 위 원

장미진 위 원

장인주 위 원

정갑영 위 원

정정숙 위 원

정종열 위 원

홍성태 위 원

5. 불참위원 : 김미라 위 원

1. 성원 보고

정병국 위원장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360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에는 2023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심의 결정의 건 등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9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제언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일자리기획부 오태연 과장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위원 12인 중에서 11인이 참여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 선언

정병국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전차(前次) 회의결과

정병국 위원장 : 송시경 사무처장은 전차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회의자료 3쪽입니다. 지난 6월 30일 개최한 제359차 전체회의에 의결안건 3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의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 의결 사항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1014호 2023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김기용 일자리기획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일자리기획부장 : 안전번호 제1014호 안전명 2023년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심의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 경과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9월 23일 2023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계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올해 6월 15일에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심의 공모계획을 수립하였고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15일간 공모 및 신청접수를 받아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 결과를 오늘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 참여자의 정규직 고용전환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문인력으로 경력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과거 3년간 민간 및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서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청년인력을 2023년도에 정규직으로 고용 전환 또는 채용한 문화예술단체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8,200만 원이고 지원내용은 고용인력의 2023년 하반기 임금의 50%입니다. 단 1인당 지원상한액은 월 100만 원으로 하여 총 1인당 600만 원의 상한이 있습니다.

지원신청 접수는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해서 총 53건에 63명, 지원신청액은 3억 8,700여 만 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8쪽입니다.

지원심의는 7월 18일 화요일 13시 30분부터 16시까지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에서 심의를 했고요. 심의위원 구성은 장르별 심의위원 7인 그리고 본 사업은 노무 분야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서 노무 전문가 1인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심의위원 명단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심의기준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우선 사전행정검토 그리고 심의지표인 근로계약사항, 예술인력 운영현황 등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행정검토는 사무처에서 지원신청단체가 제출했던 자료를 토대로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 3년간 문화예술단체의 평가결과를 점검해서 적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심의위원회에서는 근로계약사항과 예술인력 운영현황에 대해서 7대 3의 비율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근로계약사항 같은 경우는 정규직 전환 여부, 보수 수준, 근로계약의 구체성 그리고 근무조건의 적정성이 평가지표고 예술인력 운영현황은 경력단계 대비 직무 설정 수준 및 배치 직무의 중요도 등을 평가했습니다.

지원대상 선정은 사전토론을 진행했고요. 각 지표별로 세부 채점기준을 논의 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류심의를 통해 심의위원별 개별채점 후 산출된 평점을 토대로 고득점순으로 선정대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지원심의 결과입니다.

총 37개 단체 44명이 선정되었고요. 금액은 2억 5,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결정 단체 중에 몇 가지 이슈를 말씀드리면, 우선 조건부 지원결정 단체가 1군데가 있습니다. ○○○○○○ 이고요. 여기는 저희 쪽에 제출된 서류 중 근로계약서를 봤을 때 정규직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서류를 확인하고 나서 정규직이 맞을 경우, 교부 결정을 하도록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고요. 행정결격 단체는 ○○○○ ○

○○○○○입니다. 여기는 근로계약서 등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결격됐습니다. 그리고 지원 부적합 판정 단체는 최근 3개년 중 모니터링 평가 결과 최하등급 2개 단체가 있습니다. 1개 단체는 ○○○○○○이고요. 또 1군데는 ○○○○○○입니다. 2021년도 D등급과 2022년도 E등급을 받았습니다.

심의결과는 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학은 1개 단체 2명에 지원금액은 1,200만 원, 시각예술은 6개 단체 7명에 3,900만 원, 연극·뮤지컬은 13개 단체 14명 8,400만 원, 무용은 3개 단체 3명에 1,800만 원, 음악은 9개 단체 12명에 7,1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전통예술은 3개 단체 3명에 1,740만 원, 문화일반은 2개 단체 3명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심의결과를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연수단원 참여단체의 정규직 전환율은 3년 동안 연수단원사업에 참여한 동일단체 중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가 총 36개처 43명이 되고요. 비동일단체에서 고용한 게 1개처 1명입니다. 그리고 고용단체의 유형에 따라서 정규직 채용 현황을 간단하게 분석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민간단체이고요. 국·공립단체는 아무래도 정원 문제로 전환이 어려웠고 민간단체에서 총 28개처 3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9개 단체에서 11명을 연수단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최근 3년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지원 수혜 이력을 분석해 보니까요. 우선 올해 2023년도 신규단체로 21개처 24명이 연수단원을 새롭게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나머지 16개는 20명이 1회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한 단체가 다시 올해에도 정규직으로 전환 고용한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무래도 서울에서 많이 신청해서 서울에 많이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연수단원 연도별 정규직 고용전환 지원 실적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의결을 해주시면 발표는 8월 1일 정도에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그 이후 교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는 지원결정 세부내용이고 16쪽은 심의총평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궁금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미진 위원 :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는데요. 계약직이나 연수단원으로 있던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6개월 동안 월 100만 원씩 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김기용 일자리기획부장 : 예, 맞습니다.

장미진 위원 : 그랬을 경우 같은 사람이 2번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김기용 일자리기획부장 : 없습니다.

장미진 위원 : 그랬을 경우 2017년도부터 지원된 것만 봐도 대충 계산하면 1,3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그 단체에 남아 있을까요?

김기용 일자리기획부장 : 현실적으로 현재의 고용 상태를 정확하게 역추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모아 시스템이라고 해서 정부 일자리사업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과거 연수단원들을 조회하여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되어 있으면 현재 취업 중인 것으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단체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연락처가 많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고용의 지속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한 단체 중에서 전년도나 전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통해 고용한 사람이 있죠?

김기용 일자리기획부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 과정이 있어요?

김기용 일자리기획부장 : 저희가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추적은 가능한데요. 고용 유지율이 거의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것도 심의에 반영이 되나요?

김기용 일자리기획부장 : 그것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평가기준 중에 고용 유지 부분은 그냥 파악 정도입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그 단체가 연수단원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이니까요. 이 부분들도 반영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최소한 3년 정도 이상은 유지해야 하지 않느냐? 1년 정도 고용해 놓고 다음에 해고를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김기용 일자리기획부장 : 그래서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의 취지가 연수단원 고용계약, 가급적이면 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고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요.

김기용 일자리기획부장 : 잘 아시겠지만 예술단체별로 워낙 편차가 심하기도 하고 고용관계라는 게 타 분야에 비해서 문화예술계는 프리랜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경우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개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고용을 장려할 수 있는 유도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할지,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번에 선정된 기관 중에서 국·공립 기관은 없죠?

김기용 일자리기획부장 : 예. 이번에는 없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다른 질문이 없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나 발언을 통해서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1015호 2023년 예술-기술 매칭 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엄민영 융합예술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민영 융합예술부장 : 안건번호 제1015호 예술-기술 매칭 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는 1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33쪽에 걸쳐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예술-기술 매칭 지원사업은 저희가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이라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 간략하게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술 활동에 기술을 융합하고자 하는 예술인들을 위해서 예술위원회가 먼저 역량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발굴된 서비스와 예술인을 매칭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4억 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요. 올해는 기술 외에도 장소, 장비 등으로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여 20억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을 보시면 본 사업은 지원결정이 86건 20억 원에 대한 것이고요. 이 사업의 유형을 표로 보시면 1단계 기업, 2단계 예술인(단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서비스 신청을 받았습니. 104건을 신청받아 이 중에 50개의 서비스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기술 서비스를 공개하고 매칭데이를 통해 서비스의 설명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이후에 2단계 예술인(단체)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작하였습니다. 2단계에는 226건이 신청하여 86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관련내용은 붙임자료로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지원결정 세부 내역은 27쪽에 있고요. 총평은 44쪽 그리고 사업의 특수한 면이 있어서 현황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3으로 46페이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안내는 48쪽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에는 예술 분야에서는 있지 않지만 다른 분야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사업 관련 유사 사업을 조사하여 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20쪽 자료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 27일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3월에 기업 공모를 시작하였고요. 5월부터 6월까지 예술인 공모 그리고 심의를 7월까지 진행하여 오늘 보고를 드립니다.

본 사업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예술의 미래동력을 확보하고 기술융합에 대한 예술인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복수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되 1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억 미만으로 매칭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고요. 예술인(단체)은 하나의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바우처에 대한 기술 이용권을 받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조금을 지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제공하는 기술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에 대한 산출 감리가 완료될 경우에 예술위원회가 기업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하여 예술위원회는 정산과 같은 다른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21쪽에 있는 지원신청 접수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기업은 3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33일간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업설명회, 매칭데이를 5월 23일 날 실시하였습니다. 매칭데이에서는 선정된 기업별 서비스와 활용 사례를 소개하였고, 상담부스를 열어 상담을 통해 예술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예술인(단체)에 대한 공모를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2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지원신청 결과 1단계 기업 신청의 유형1은 기술서비스, 유형2는 장소와 장비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나누었는데요. 총 104건이 들어왔고 이 중에 8건이 걸격되었습니다. 걸격사유는 필수서류를 미제출한 건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총 96건을 심의대상으로 올렸습니다.

2단계 예술인(단체)의 경우에는 유형1이 232건, 유형2에 34건 신청했고요. 역시 걸격을 제외한 260건을 심의대상으로 올렸습니다. 걸격 사례들로는 국·공립 기관은 신청불가했으나 신청한 경우가 있었고, 필수서류나 필수서명을 날인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 사업은 일반용역비로 진행하는 기획사업이었지만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보니 저희 지원심의 운영에 관한 처리 기준을 준수하여 지원심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1단계 기업, 2단계 예술인(단체) 그리고 기술 서비스의 경우에는 기업과 예술인(단체)이 합동PT를 실시하였는데요. 심의 시 평가기준에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심의위원단은 동일한 인사로 구성하였습니다. 심의위원은 적격자 지정 방식을 통하여 구성하였습니다.

22쪽 심의위원명단 총 5인에 대한 정보는 자료로 정리하였고요. 문화에 대한 부분, 예술에 대한 부분, 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고른 의견을 나눠 주실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단계 지원심의를 5월 9일 그리고 2단계 서류심의는 7월 4일, 합동PT는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총 4일간 진행을 하였습니다. 방식은 전수검토제와 온라인채점을 통한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하였고요. 심의기준은 1단계 기업의 경우 이런 매칭사업의 취지 적합성 20% 그리고 서비스 품질 및 수행계획 50%, 기업의 수행역량 30%를 심의기준으로 삼았습니다.

2단계 예술인(단체)의 1차 서류심의에서는 예술성을 보았습니다. 예술활동의 우수성이 40%, 사업취지 적합성 30%, 수행계획의 충실성 30%를 기준으로 기술의 경우, 인터뷰심의 대상자를 결정하였고, 장소나 장비의 경우 서류심의로 지원대상을 결정하였습니다. 합동PT는 매칭된 기업과 예술인이 함께 인터뷰 심의를 하는 방식이었어요. 여기에서는 사업취지의 적합성 30%, 수행계획의 충실성을 가장 높은 가중치로 50% 그리고 예술현장의 파급력을 20%로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2단계 예술인(단체)에 대해 총 86건이 선정되었고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 유형1에 대한 기술 68건, 유형2의 장소와 장비가 각각 9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각각 15%의 기준인 총 7건의 예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심의 제척 같은 경우 해당사항이 없었고요. 회피는 심의위원이 기업을 회피하는 경우에 기업과 매칭된 예술단체도 모두 다 회피하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24쪽과 25쪽을 보시면 회피에 대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오늘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는 다음 주 중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50페이지에 있는 타기관의 사례에 대한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우처를 활용한 타 기관 사업들은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하는 데이터바우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776억 원 규모로 사업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한국관광공사가 관광혁신바우처 50.4억 원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XR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7.8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3가지는 모두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서비스고요. 저희가 하는 예술-기술 매칭 서비스는 올해 예산이 20억 원인데요. 저희의 대상은 예술인(단체)인 점을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예술인과 기업의 자체적인 계약이 아니라 예술위원회가 개입하여 3자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완수와 품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 관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감리업체도 따로 지정하여 프로젝트 중반에 중간 감리와 완료 후에 산출물 감리까지 시행하는 부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신규 사업이라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만 조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단계 같은 경우는 기업을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정한 50개 기업과 예술단체를 매칭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매칭 했을까요?

염민영 융합예술부장 : 자료 4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의 공모를 1단계로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63개 기업이 참여하여서 50개 서비스가 선정되었어요. 선정된 서비스의 목록을 저희가 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세부 내용과 함께 기업과 기업의 연락처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올해 당장 예술활동에 접목이 필요한 예술가들이 해당하는 부분의 기업에 연락을 드려서 사전협의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사전협의를 작성하고 지원신청을 하는 절차로 진행했습니다. 사전협의서에는 예술인의 요구사항이 무엇이고 그러한 것들을 기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산출물을 제출할 것인지? 그리고 추후에 유상 및 무상 유지보수, 하자보수 방법이 필수사항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저희가 서명 미달인이 행정결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 이해관계자들의 직접 서명이 들어간 부분으로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 예술인들이 이해하시는 부분이 조금 더 어렵고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매칭데이라는 행사를 5월 22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개최해서 기업들이 기술서비스를 직접 설명하고 부스를 마련해서 관심 있는 예술가들이 해당 기업부스에 가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작업이 이 기술서비스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서승미 위원 : 그래서 궁금한 것은 기업이 예술인과 매칭됐을 때 사업 선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기업이 선정되었는데 그 기업이 선택을 못 받은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요?

염민영 융합예술부장 : 예, 맞습니다.

서승미 위원 :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염민영 융합예술부장 : 저희가 처음부터 기업에 대한 서비스가 반드시 선정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고요. 여기 37개 기업 중에서도 3개 기업은 매칭 자체를 성공하지 못하

였습니다. 그리고 3개의 기술 같은 경우에 1차 서류에서도 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서류에서도 탈락한 기업이 한 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37개 중에 7개 기업은 최종 선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매칭의 일반적인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승미 위원 : 그렇다면 총 120개 정도가 올라갔다고 했나요? 그중에서 50개를 선정했고 그중에 30개만 선택을 받은 게 아닌가요?

염민영 융합예술부장 : 지금 제가 말씀드린 30개는 기업의 숫자입니다. 63개 기업이 신청을 하였고 1개 기업이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104개 서비스가 신청되었고 104개 서비스 중에 50개 서비스가 매칭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승미 위원 : 그러면 거꾸로 예술단체 같은 경우도 선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나요?

염민영 융합예술부장 : 예. 266개 사업이 신청되었는데 선정된 사업은 86개입니다. 경쟁률이 3.1:1 정도였습니다.

서승미 위원 : 탈락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같이 고생을 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너무 이해를 못 했나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잘 모르겠어서요.

정병국 위원장 : 제가 직접 참석을 해서 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업의 기술이 과연 우리 예술과 접목하는데 필요한지 아닌지를 1차적으로 심의해서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그 기업의 기술을 활용하고 싶은 예술인들을 선정합니다. 50개 기업의 부스를 마련해서 선정된 예술인들이 와서 부스를 돌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창작 행위와 이 기술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협의해 보고 맞다고 하면 “우리 같이 해 보자.” 라고 하면 둘이서 같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최종 제안을 하는 거죠. 그것을 마지막으로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염민영 융합예술부장 : 그래서 문의하신 대로 탈락된 사업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일반적인 공모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승미 위원 : 그런 과정이군요.

염민영 융합예술부장 : 예.

서승미 위원 : 바우처를 지급하는 건에 대해서 예술단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염민영 융합예술부장 : 예. 저희가 일단 사업 시행에 앞서서 설문조사를 작년 11월과 12월에 했습니다.

서승미 위원 : 설문대상은요?

염민영 융합예술부장 : 저희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신청하신 경험이 있는 전 장르의 신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요. 작년에 516명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쭙본 결과 기술융합 예술을 수행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중에 34%였고 경험이 없었지만 이런 사업의 지원을 받고 싶다는 필요성을 느끼신 분이 82%였습니다. 기술 서비스로는 인공지능과 실감미디어, 3D, 3종류로 기술 서비스 신청을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작년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예술인들이 가장 접목시키고 싶은 기술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느껴졌고요. 게다가 작년 시범사업은 데이터매칭으로 진행하였는데요. 데이터매칭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재참여 의사가 100%였습니다. 예술 활동에 대한 비용 자체를 지급해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융합을 하고 싶은 예술인들이 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자신의 활동에 적합한 기술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고 그런 기술을 누가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요즘 기술 비용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비용 부분을 감당할 여건이 되지 않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시도해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초에는 저희가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실제 합동PT를 통해서 확인한 부분들은 굉장히 예술 활동을 활발히 하시고 글로벌한 반열에 오른 분들도 본인이 하고 싶은 부분들에 아직 접근성이나 비용이 충분하지 못하여 저희 사업에 신청을 하였고요. 저희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시면서 본인이 “3D의 이미지를 넣고 싶었는데 애니메이션을 할 비용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다.”, “자신의 작품은 기존에 2D로 넣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3D로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시거나 제주도나 부산 등 전국 각지에 있는 장애가 있으신 예술인들 그리고 원로예술인, 순수 시각예술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사업은 본인이 떨어져도 좋다. 사업이 있는 것 자체도 너무 든든하다.”, “계속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승미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쭙볼게요. 사업을 선정할 때 장르는 구분하지 않았죠?

염민영 융합예술부장 : 장르는 구분하지 않고요. 문화일반으로 신청받았습니다. 이 장르부분은 본인들이 어느 장르에서 주로 활동하시는데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여러 장르에 체크를 해주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극이나 다원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장르문항에 극장 형식으로 넣어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요즘은 음악과 시각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복수로 체크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붙임3을 보시면 이 사업의 의미가 정리되어있는데요. 장르, 지역 등이 있고요. 또 의미 있게 봤던 부분은 신청인 중에 25%가 이번에 NCAS에 처음 등록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기존에 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분들이 이 사업을 통하여 신규지원을 희망하신다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일수록 기존에 본인이 하셨던 활동에 새로운 발전을 열망하시는 것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서승미 위원 : 저는 사무처에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1년에서 2년 정도는 좋은 예를 공지하고 그 예를 외부에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규사업이라 좀 생소할 수 있고 제가 이 서류를 봐도 어떻게 했다는 것을 파악하기 어려웠거든요. 물론 추진하신 입장에서는 다 이해하시지만 다음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자세히 소개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염민영 융합예술부장 :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11월까지가 사업기간인데요. 사업을 마치고 12월에 성과공유회를 통해서 이 사업에 실제 참여하신 예술가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들도 같이 안내하고 다른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의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각 위원 : 예술에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고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도는 해볼 만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예술단체의 매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결과를 보면 특정 기업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요. 몇 개의 기업은 20개 이상의 예술단체가 집중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문예기금 자료를 보니까 내년 사업이 아예 삭감되었다고는 하지만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고 평가를 하고 나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또 이렇게 특정 기업에 쏠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가 좋은데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기업이나 기술력이 있으면서도 예술단체의 선택을 받지 못한 기업들의 불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할지도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염민영 융합예술부장 :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준비할 때부터 특정 기술에 대한 쏠림 부분을 많이 우려했기 때문에 1개 기업에 지원하는 총액을 3억 미만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료 47쪽을 보시면 기업별 매칭건수와 매칭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많이 매칭된 횟수는 8건으로 24번의 ○○○○○○입니다. 여기는 1억 5,645만 원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금액기준으로 가장 많이 지원받는 기업이 1억 9,940만 원인 28번 ○○○○○○○○입니다. 3억 미만의 제한으로 1차적인 조정을 하였고요. 수요대비 관심 기술 부분을 46쪽에 정리했는데요. 기술-기업별 신청 및 선정현황 자료를 보시면 유형1의 세부 기술서비스 신청 및 선정현황입니다. 실감미디어, 인공지능, 3D 등 이 부분을 예술인들께서 필요하다고 보셨는데요. 기업들도 실감미디어와 관련된 부분이 63%, 인공지능 16% 그리고 3D가 21% 정도 신청을 하셨고요. 선정된 비율도 실감미디어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인공지능 같은 경우 11개 서비스가 신청했지만 선정은 3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심의위원들께서도 많이 고민하셨던 부분인데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는 높지만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성숙도가 현재까지 높지 않고 실제 예술에 접목되었을 때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선정과 신청건수를 보더라도 실감미디어가 75%, 인공지능이 7%, 3D는 18% 신청하셨는데요. 선정된 부분은 실감이 제일 많고 인공지능이 조금 올라간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신 특정 기업에 쏠림 현상이 있지 않도록 사업을 설계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3억 원이라는 기준이었지만 이 기준 자체에 대해 제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수요는 있지만 예술인들이 실제 접목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기술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예술 현장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바우처 방식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요.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인공지능 관련된 새로운 생성과 현장에 과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와도 협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 제가 추가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유형1과 유형2로 나누잖아요?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이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포함한 기술일 텐데 여기에 보면 LED패널, 빔프로젝트 등 장비대여가 있어요. 예술과 기술이 융합하는 사업인데 굳이 임차의 개념인 장비대여. 금액은 적지만 이런 지원이 꼭 필요한가? 그리고 %로 봤을 때 유형2에 해당하는 부분이 필요한 예술가나 단체들은 몇 %가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염민영 융합예술부장 : 예, 그 부분도 데이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을 보시면 3개 유형별 지원신청 접수결과를 보시면 2단계 예술인(단체)이 기술을 신청하신 경우가 232건이었고요. 장소 21건, 장비 13건이었습니다. 예술인들은 절대적으로 기술에 대한 서비스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작년에 이 사업을 설계할 때도 이런 장소, 장비를 아우르는 기술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 사업을 시작하였는데요. 저희가 올해 사업을 조금 더 개선하려고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기술 접근성이 필요한 예술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접근성은 있지만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더 나은 장비나 장소 등의 지원, 그러니까 기반 조성에 대한 지원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유형1 기술과 유형2 임차로 나뉘어서 사업을 진행해 보았고요. 지금 의견을 주신대로 현장수요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차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감안하여 조금 더 개선하여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 지난 IFACCA 총회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나라들이 많았고요. EC에서 공동기금사업으로 EU와 함께 아프리카를 상대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사업 프로젝트를 제시하니까 예술인들이 여기에 맞춰서 지원해야 하는. 맞추지 않으면 선정되지 않을 것 같아 제시한 것으로 전환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결국 예술위원회가 보이지 않게 규정을 하는 것 같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대의 기술 변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평이 넓어질 수도 있고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의견처럼 규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지원한다,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택이니까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내년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이유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창업지원입니다. 창업지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과 유사한 사업이라고 하여 기획재정부 1차 심의에서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IFACCA 총회에서 많은 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고 싶다고 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이것을 주제로 다음 IFACCA 총회 개최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이게 주인데 지금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총력으로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동안 정부에서 ICT산업 분야를 굉장히 권장하면서 예산을 이 분야로 집중투자를 하다 보

니 모든 부처와 부서에서 ICT와 관련된 사업을 하면 예산을 잘 주니 전부 다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내놓았는데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 정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산업이 아니라 예술이에요. 예술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는 것인데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까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술로 창작을 하고 실생활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창업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다음에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랩을 지금 만든다고 합니다. 그 랩으로 넘겨줄 수도 있지 않느냐? 단계적으로 운영하자라는 부분에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들은 동의를 했는데 아직 기획재정부 설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 위원들께서 같이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나 발언을 통해서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세 번째 의결안건인 안건번호 제1016호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주연 기획조정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안건번호 제1016호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입니다.

우리 위원회 운영규정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규정 중 기본규정이라서 개정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에 규정 개정의 건이 있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2019년부터 도입을 해서 사실상 계속 시행 중인 근로자 위원회 참관제. 통상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규정화해서 명확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3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위원회 운영규정에는 내용이 없었고요. 지금 조항을 신설해서 ‘근로자 위원회 참관’이라고 해서 “위원회는 노동조합 대표 또는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 1인을 위원회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참관인은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그리고 “참관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이사에 준하는 비밀유지의무를 가지며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의 규정입니다.

다음페이지인 54페이지를 보시면 사실상 2019년부터 노동조합위원장의 참관제도를 실시해서 현재까지 5년째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해는 2019년도 251차 위원회 전체 회의부터였고요. 참관자는 당시 노동조합위원장이었습니다. 참관인 자격요건은 1명, 현재까지 노동조합의 장이었고요. 참관인 권한은 참관 안건에 대해 추가 자료 및 관련 자료 열람요청이 가능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구두의견 개진이 가능합니다. 책임으로는 당연히 이사에 준하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55페이지부터는 타 공공기관이나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한 제도들의 사례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노동이사제’가 이사회 운영규정에 반영되어 운영할 예정이고요. 서울문화재단이나 경기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노동이사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에 있는 한전KPS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개정안으로 올린

위원회 운영규정 13조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근로자 이사제 참관’ 제도가 있고 한국동서발전 역시 유사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56페이지까지는 유관기관의 사례를 언급했구요. 우리도 현재까지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었던 만큼 명확하게 규정화하고자 하여 의결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태 위원 : 참관해서 나쁠 건 없지만 참관하는 목적은 뭐가요?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예술위원회 직원들의 대표로서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안건에 대해서 청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필요할 때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성태 위원 : 그러면 혹시 비밀유지 의무와 상충되는 지점은 없을까요?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예. 위원회 정관이나 위원회 운영규정을 보면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노동조합대표, 근로자대표의 경우 비공개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사안은 노동조합이 2019년부터 계속 참여를 해 왔어요. 다만, 다른 기관들은 근거조항을 만드는데 우리 기관은 근거조항이 없으니 보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점은 특별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별다른 의견은 없고요. 당연히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참관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발언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병국 위원장 : 결국 위원장의 재량으로 범위를 넘어선다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는 위원장이 의장으로서 제재를 해야 하겠죠.

정갑영 위원 :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믿는데요. 이 취지는 노동자로서 직원의 권익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정병국 위원장 : 권익만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주간경영회의도 계속 참여를 하고요. 제가 모든 회의를 현재 공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가능하면 같이 듣자.”라는 것인데 제 입장에서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것과 주간경영회의에서 간부회의를 해도 우리 직원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결정을 했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협상은 1년에 한번 씩 하는 노사 간 협의채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우

리 위원회에서 노사 논의를 하진 않기 때문에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정갑영 위원 : 우려를 하는 게 아니라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위원장님은 허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위원장님은 허락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정병국 위원장 : 발언의 범위를 명문화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 그랬을 경우 저라고 하면 발언권을 주지 않을 테고 상황에 따라서는 참여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안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는 경우일 텐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직원을 대표하는 노조는 어떤 입장인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때는 발언권을 주겠지만 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관여를 하는 상황이라면 발언권을 주지 않아야 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위원회의 권위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노사 간에 협상을 통해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태 위원 : 그것을 설정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재량으로 하셔야죠.

정병국 위원장 : 예. 구체적으로 규정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원칙적으로 현재 규정안에도 그렇고 참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관이 기본이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만 위원장님의 동의를 얻어 발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거수나 발언을 통해서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고 사항

정병국 위원장 : 이어서 사무처장은 위원님들께 보고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오늘 보고를 드릴 안건은 9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23년 국제 예술공동기금사업 잔여예산 활용계획(안)에 대해 김나영 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예, 국제교류부 2가지 안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잔여예산 활용(안)입니다.

우선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은 국가를 대표하는 내셔널 레벨의 해외 예술지원기관과 양자 협력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교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 영국을 시작으로 이후 독일, 덴마크, 싱가포르, 네덜란드와 사업을 진행했구요. 작년 연말에 캐나다예술위원회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이 약정을 기반으로 올해와 내년까지 협력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기금사업은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운영되는데요. 1차년도는 파트너십 체결과 상호 사업방향을 설계하고 2차년도에는 예술가들과 단체들이 상호 아트신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리서치 사업과 총괄기획자를 선정해서 3차년도까지 함께 운영하게 되고 3차년도에 리서치 기반의 본격적인 협업형 사업들이 진행됩니다. 지난달에 서면의결 안건으로 공동기금사업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총 5억 원의 예산중에 2억 원이 배정되어 있던 총괄기획자가 선정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처음 공고를 낼 때 총괄기획자 사업의 경우 2건이 접수되어 한차례 연장을 했었고 총 8건을 접수 받아 서류심사와 인터뷰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주요한 이유는 본인의 프로젝트 중심이 아닌 양국 간 교류의 매개자 역할 그리고 교류환경 조성이 주요한 역할이었는데 이 역할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캐나다 파트너 기관과 유관기관, 저희 내부의 여러 부서와도 논의를 진행하면서 기관 자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방안도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예산 자체가 민간경상보조라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전용 시에는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에 리서치 공모를 진행하면서 심의위원들과 공통적으로 공감을 했던 것이 그동안 캐나다와 교류가 많이 없었고 기반이 미약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리서치 사업 자체의 깊이가 깊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구요. 그것에 따라서 리서치와 매개 역할 자체는 꼭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여러 자문과 고민을 거쳐서 제약조건을 좀 완화하고 역할과 결과물을 더욱 명확히 해서 당초에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공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처음 접수를 받으면서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다시 돌이켜봤는데요. 아무래도 기획자들이 본인의 프로젝트를 하길 원하고 매개 역할이라는 것이 잘 인지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구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시기까지는 개인이나 청년사업 같은 경우 모두 자부담이 면제였는데 이번에 자부담을 적용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혼자 전담으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사업이 다소 크고 지원자격에도 허들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9페이지를 보시면 기존에 저희가 개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콜렉티브나 단체도 가능한 형태로 완화를 했구요. 전 장르의 리서치를 통한 협업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에서 특정 분야로 제한을 했습니다. 캐나다 관련해서 저희도 리서치를 하다보니까 캐나다에서 2018년 정도에 디지털전략펀드를 조성해서 예술-기술 분야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 왔고 일렉트라나 뮤텍 등 우수한 플랫폼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술-기술 관련된 주제를 하나 선정하고 나머지는 자율주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할도 사업

에 대한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국과 캐나다 예술가들의 매개형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부담 관련해서 이 사업이 개인의 프로젝트도 아니고 수익성이 없음을 고려해서 자부담 편성 의무를 제외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보고안건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공고문을 보다 정교히 해서 8월 초에 서면의결 요청을 드리고 공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잠깐만요. 그러니까 개인에서 단체로 바꾼다는 말이죠?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예, 맞습니다.

정갑영 위원 :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주 기획자가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예, 맞습니다. 기획자 콜렉티브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런데 10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기관에서 보통 전문성을 판단할 때 심의위원 기준이라든지 자문위원 기준을 모두 10년으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획자가 있는 단체가 얼마나 될까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저희가 문의받은 것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단체는 꽤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자부담의 허들이 있던 것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면 저는 충분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갑영 위원 : 사전에 그러한 지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개인에서 조건이 있는 단체로 변경을 하게 되면 자칫 의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어떤 단체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변경을 하는데 10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달게 되면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10년 이상이라는 조건은 기존 공모와도 동일한 조건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갑영 위원 :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개인에서 단체로 바꾸면서 10년 이상의

경력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잡음이 날 가능성도 있어보여서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그러면 취지를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예, 그 취지 설명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냥 예술인 개인에서 예술단체로 확 바꿀 게 아니라 예술인 개인이나 예술단체가 다 들어가면 되잖아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개인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술단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예술단체만 되는 것 같으니까요. 지금 범위를 넓힌 것 아닙니까?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맞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술인 개인이나 예술단체라고 표기하면 되는 것이죠.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예, 알겠습니다.

장미진 위원 : 지금 접수연장을 했어도 안 된 것이죠?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예, 접수를 연장해서 총 8건을 받았는데 결국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장미진 위원 : 개념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 같고요. 다시 단체로 넓힌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을까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매개 사업이 뭔지를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매개의 개념이 정확하게 뭔가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서로 연결해 주고 플랫폼을 같이 개발하고요. 캐나다에서 뽑힌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들과 같이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공동기금사업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공동기금사업은 보통 2년에서 3년 간 어떤 나라를 정해서 그 나라와 상호 동의를 하면, 올해는 캐나다로 정해졌잖아요. 캐나다와 같이 공동기금을 마련해요. 우리가 얼마를 내고 캐나다가 얼마를 내서요. 그 기금을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인가? 그런데 나라가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개자가 필요한 것이죠.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연결해 주는 것을 매개할 수 있는

기획자를 뽑는 겁니다.

장미진 위원 : 장르별로 있는데요. 굳이 매개라고 따로 떼어내서 할 만한 사업인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르별로 때로는 매개를 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굳이 매개라는 게 별도의 분야로 따로 분리해서 접수를 받는 게.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하면, 단순 매개만이 아니라 기획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와 우리가 함께 하니까요. 우리끼리만 하게 되면 굳이 기획자가 필요 없을 텐데요. 캐나다와 공동으로 하니까 캐나다의 의견도 반영해야 하고요. 그래서 기획자인데 매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장미진 위원 : 그러니까 기존에 영국이나 다른 나라와 했을 때는 매개라는 분야에 많은 지원자가 있었고 활발하게 이루어졌나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싱가포르 공동기금 때부터라서 싱가포르와 네덜란드와 교류할 때부터 총괄기획자를 선정했는데요. 그 당시에 매개 역할보다는 본인의 큰 프로젝트를 하는 것으로 사업이 설계되었었고요. 그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현장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보니 대형프로젝트보다는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아우르고 파트너 국가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오히려 이 사업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여서 올해는 매개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공모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장미진 위원 : 처음인가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완전 처음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기존에도 사실 매개 역할이 일부 있었는데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먼저는 총괄기획자로 해서. 그러니까 기획자라고 하면 기획자가 기획을 하고 다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동기금 성격에 안 맞는 경우가 생기죠. 자기중심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은 두 나라 간 협의를 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을 중심으로 역할을 하는 게 더 낫겠다고 해서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배은주 위원 : 저도 의견을 드리면, 이게 매개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캐나다로요. 그래서 캐나다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있는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선정되어야 한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인지원도 포괄적으로 넓혀야지 예술단체로 한정하게 되면 어쨌든 이것은 매개자 개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단체가 움직일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으로 넣어서 진행하면 역량 있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말씀하신 부분 동의하고요. 개인으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원래 개인인데요. 이걸 개인한테 주니까 캐나다와 교류한 적이 없는 겁니

다. 개인이 없어요. 지원신청 들어온 것을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사업 중심으로만 프리포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단체까지 포함을 시킨 겁니다. 여기에 잘못 쓴 겁니다. 예술인 개인 또는 단체라고 넣어야 되는 것이죠.

홍성태 위원 : 그런데 국가 선별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난번에는 싱가포르와 했다고 하는데 국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정병국 위원장 : 선정은 상대적이잖아요? 상대국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가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캐나다는 전년도에 결정이 된 것이고요. 지금 새로 추진하려고 하는 데는 EU 그리고 호주가 들어와 있는데요. 호주는 적극성이 덜한 것 같아요. 반면에 EU는 적극성을 띠고요. 우리 실무진과 논의한 것은 EU와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 상대국은 EU가 개별 국가는 아니고 연합체지만 EU와 하는 게 시너지효과가 훨씬 크겠다고 생각해서 EU와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려 논의를 하는데요. 어떤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교류를 하면서 그 나라의 예술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사업을 공동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로 시작되는 것이죠.

홍성태 위원 : 그러면 2년 중에 1년 2개월이 남았는데요. 혹시 그 안에도 선정이 안 되면 그 금액은 나중에 누적이 되나요? 아니면 못 쓰는 건가요?

정병국 위원장 : 못 쓰는 거죠.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올해 선정이 되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진각 위원 : 이 사업 자체가 나라 간의 예술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대국인 캐나다 예술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캐나다 예술에 대한 이해가 있는 예술인이나 예술단체가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다고 하면 문호를 확대할 필요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캐나다뿐만 아니라 북미 쪽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출신의 교포나 기획자들이 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한테도 문호를 확대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정병국 위원장 : 나라가 캐나다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진각 위원 : 그러니까 이번 사안에 국한해서 보자면 캐나다와 공동기금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캐나다 예술에 대한 형태를 이해해야 하고요. 캐나다가 어떤 예술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캐나다와 교류가 여태까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선뜻 응하는 사람이 적은 것이죠.

김진각 위원 : 그러니까 제 말씀은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그것은 제한이 없다고요.

김진각 위원 : 제한이 없어요?

정병국 위원장 : 예, 제한이 없습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런 것들이 여기에 명시되어야 할 것 같아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공고문에 보시면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상의 경력과 최근 5년 이내에 국제교류사업을 기획한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북미권의 교류나 캐나다와의 경험은 심의에서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러니까 해외 거주자도 무방하다고 디테일한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술인활동증명이 되어 있다면 가능하고요. 해외거주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 근본적으로 저희가 제약을 받아요. 국가예산을 지원하는데요. 그렇지만 외국 거주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진각 위원 : 이 조항만 보면 예를 들어 내가 캐나다에 살고 있는 기획자인데 “이것을 내가 지원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안 들까요? “이게 나한테 해당되는 조항일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물론 의향이 있다면 문의를 해 보겠지만요. 그런데 그런 문구를 추가적으로 넣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공고문을 정리하겠습니다.

홍성태 위원 : 그것뿐만 아니라 현지의 사람들이 알아야 하니까 현지에도 홍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 EU와 하더라도 자국민이면서 능력이 있는 기획자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지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예, 알겠습니다. 저희 파트너인 캐나다 예술위원회를 통해서 캐나다 측에서도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보고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접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잠시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에 다시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12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정병국 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보고안건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유치의향서 제출 계획에 대해 국제교류부 김나영 부장이 이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우선 IFACCA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에 설립된 국제예술위원회와 문화기관의 연합체로 보시면 되고요. 문화예술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화정책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술위원회는 진흥원에서 위원회로 전환된 후인 2006년에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였고요. 2009년에 아시아챗터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세계총회는 정부와 문화 분야 그리고 대중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이고요. IFACCA가 정회원 기관 중에 1개 기관과 함께 주최하는 형태로 통상적으로 3년 주기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스톡홀름에서 9차 총회가 있었고요. 위원장님께서 참여하셔서 차기 총회 유치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시고 짧은 기간 동안 12개 회원국과 미팅을 하시면서 주요 관심사를 수집하신 바 있습니다.

IFACCA 측에서 의향서 작성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었는데 의향서는 레터 형식, 3장 분량으로 제한이 됩니다. 이 안에 필수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장소와 일정을 비롯해서 총회 개최에 대한 비전과 행사계획 그리고 유사경험, 기대효과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저희 실무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분석하고 지난 총회 논의사항들을 검토하였고요. 유관기관 미팅과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기관 차원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제10차 총회는 2025년 9월 4주차에 DDP에서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주제는 “두 문화의 조우와 협력”이고요. 통상적으로 3년 주기로 개최가 되어 왔지만 이전에도 2년 만에 개최된 사례가 있었고 총회 당시에도 워낙 환경변화가 급격하고 빠르기 때문에 더 자주 논의테이블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부분 공감을 하였습니다. 또 IFACCA 사무국 측에도 개최시기 조정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제로 제안하는 두 문화는 예술과 과학 간에 소통과 협력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고요. 기술 중심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문화예술의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이 주제를 실질적으로 풀어갈 총회 운영방향은 행동과 미래세대 초대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예술과 기술 분야의 구체적 쟁점에 대한 공동지식을 생산하고 기존의 방식보다 논의테이블을 넓혀서 다양한 협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인 참여를 당부하는 구체적인 선언문을 작성해서 발표하는 것까지 목표하고자 합니다. 또 다양한 주체의 미래세대의 참여를 독려하고 거버넌스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고요. 이번에 최초로 의향서 가이드라인에 탄소 절감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비록 대면회의를 기본으로 하지만 기후 위기를 고려해서 탄소상쇄기금 부스를 운영하는 등 녹색회의 인증에도 도전을 해 보고자 합니다.

예산은 가이드라인 상에 개최국 부담이 약 15억 원 정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대프로그램까지 하면 약 5억 원 정도가 추가될 예정이고요.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유치 개최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20억 원 이상은 별도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유치가 확정되면 가급적 20억 원 안으로 한시적 증액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총회 유치는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31일까지 정회원 대상으로 의향서를 접수 받고 9월 말까지 후보자 압축 통지를 하게 되고요. 내년 2월에 최종 제안서 제출과 프레젠테이션 후에 최종 개최지가 결정되는 프로세스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접수 마감이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드리고 주말 중에 조금 더 보완해서 제출하고자 합니다. 국·영문 전문은 지금 인쇄본으로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감을 안고 준비를 했는데 유치가 되면 준비과정에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정숙 위원 : 이 자료를 보기 전에는 가이드라인 요구사항에 동의한다고 해서 도대체 어떤 가이드라인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동의를 하셨는지가 궁금했는데 설명을 잘 들었고요. 예술위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IFACCA에 월드서밋을 제안하고 2025년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트워크가 튼튼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정책과 관련된 또는 예술정책과 관련된 주도적인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FACCA의 월드서밋을 보니까 4회, 5회, 6회, 7회 때는 2년 마다했어요. 그래서 3년이 기본이지만 우리가 2년 안에 한다고 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2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금 의향서를 보면 “두 문화(Two Cultures)”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문화에 숫자를 넣는다는 게 넌센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Two Cultures라고 하면 Old and New가 생각나고 아니면 동서양 등 이분법적 생각이 나서 Two Cultures라는 말은, 그러니까 문화다양성과도 약간 대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아예 바로 “Two Cultures를 빼고 ‘예술과 기술’을 넣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한 가지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영문으로도 되어 있지만 우리말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문화예술의 가치를 예견한 지속적 투자가 창조산업의 근원이 되었고 우리가 10위 경제대국이 되었다거나 선진국이 되었다는 표현들은 우리 예술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내용으로 다소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예술위원회가 1972년 진흥원으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예술가들 몇 분에게 이런 지원을 했고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어떤 발전과 노력을 해 왔다는 내용을 넣는 것이 서론에서 의미가 있지 지금처럼 10위 국가 얘기를 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술위원회의 성과가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내용 관련

된 제 의견이었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시고 현장에 가서 보시고 와서 만들어진 것이라서 실질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만약 이게 통과된다면 꼭 문화단체들, 예술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공동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반드시 이 회의를 준비하고 답론을 형성해 가는데 있어서 우리 예술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느낌보다는 우리는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로 생각을 모으고 최대한 예술단체나 문화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으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만, “두 문화”라는 개념은 앞에 Two가 붙으면서 분리된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인문학과 과학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의 중요성을 조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태 위원 : 그래도 정 위원님 말씀대로 왜 Cultures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Cultures라고 이름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정병국 위원장 :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수정안을 검토해 보세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실무에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태 위원 : 이게 서울에서 열리게 되면 어떤 이슈메이킹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에 대해서요. IFACCA를 한국에서 할 때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정병국 위원장 : 일단은 국내에서는 관광 당국이 좋아할 것이고요. 서울시도 좋아할 것이고요. 스톡홀름 같은 경우에는 예술위원회 수장이 참여한 국가가 47개국 그리고 일반문화단체나 개인이 참석한 나라를 합치면 80여 개국입니다. 토달 400여 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세계의 문화예술위원회의 수장들이 오게 되면 우리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한국 문화를 세세하게 알릴 수 있는, 저희들도 그랬습니다만, 스톡홀름에 있는 모든 문화예술기관, 전시관, 극장을 섭렵하니까요. 문화예술을 리딩하는 그룹들이 한국문화예술을 보다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우리 문화를 더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부가적으로 400여명이 모두 자부담으로 오는 겁니다. 자부담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광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문화예술을 보다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계기성 문화이벤트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페스티벌 성격이 될 수도 있겠죠.

홍성태 위원 : 그러니까 올 가을에 페스티벌을 하는 것도 일반시민들한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존재도 알리고 협조도 구하는 거잖아요? 세계총회도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병국 위원장 : 예.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김진각 위원 : 주제로 “Two Cultures”라는 개념. 제 기억이 맞으면 굉장히 오래된, 거의 60년 이상이 된, 저도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강연을 하면서 했던 얘기로 제가 기억해요. 사실 60년 전에 나온 담론이고요. 그것을 차용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의 세계문화예술 트렌드와 맞는가? 그리고 세계문화 예술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글로벌 문화예술 아젠다로는 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위원장님께서 IFACCA총회에 가셔서 예술과 기술 융합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주제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의 서브타이틀로 글로벌 아젠다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기타사항에 보면 기후위기 관련된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후변화와 예술과의 관계, 기후변화 속에서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다른 나라들도 이 분야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조금 더 공통적인 관심사를 끌어낼 만한 주제, 그런 주제가 하나 더 채택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직 시간이 조금 더 남았으니까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정갑영 위원 : 14만 불을 납부한다는 것이 있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사무국이 있어요.

정갑영 위원 : 사무국에서 우리한테 준다는 건가요?

정병국 위원장 : 아니죠. 우리가 거기로 줘야죠. 그쪽에서 주관을 하니까요.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세 번째 보고안건인 2024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편성 중간보고에 대해서 기획조정부 임주연 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7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편성 관련해서 드리는 보고인데요. 저희가 5월 말에 부처(안)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위원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계속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치고 12월 초에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12월 말 위원회 때 202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계획(안)이 확정되었다는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예산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중간에 보고를 드리는 이유는, 내용을 보시다시피 중간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공유하고 상황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릴 대

로 5월에 1차 부처(안)을 수립해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했고요. 6월 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지시로 예산안 원점 재검토가 전체적으로 논의되면서 2023년도 7월 2일에 예산안을 재검토하고 수정 제출이 되었습니다. 수정 제출된 금액은 저희가 5월 말에 요구한 금액 자체는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습다.

그런데 지난 7월 14일에 202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의 1차 심의값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72쪽 하단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술창작지원이나 예술인력육성 등 핵심사업이 거의 20% 가까이 깎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의 기획재정부 2차 심의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2차 자료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1차 심의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작부분은 거의 20% 가까이 삭감이 된 상태로 1차 심의값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구요. 폐지된 사업이나 꼭 유지해야 하는 사업 같은 부분을 위주로 해서 2차 추가 제기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표를 보시면 2024년도 예산 관련된 주요 이슈로 지금 정부의 예산기조가 건전재정 기조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예산증액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 그동안 확대되어 왔던 비영리단체의 보조금 감축 및 기획사업으로 전환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사업들의 구조조정 그리고 지역과 중앙 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이 부분은 올해만 있던 부분은 아니지만 정부의 여러 가지 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증액 제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1차 심의 주요결과는 7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예술창작지원 세부사업이 전년 대비 19% 감액이 되어서 98억 원 정도가 삭감되었고요. 그중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 65억 9,6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어 사업폐지가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력육성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19.3% 감액이 되었고요. 지역문화예술지원의 세부사업도 전체가 폐지되어 1차 심의 결과 값이 왔습니다. 이 지역문화예술지원 세부사업 안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문화협의체운영 예산 1억 8,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아르코공공예술지원 사업이 37억 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관광자원화 일부사업(전통예술지역브랜드상설공연)이 폐지되어 16억 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72페이지를 보시면 202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2차 심의 대응 방안으로 사업폐지가 된 사업인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은 특히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예술의산업화 사업과 중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 삭감이 되었는데요. 예술과 기술융합 창작활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고 예술현장의 만족도도 높기 때문에 사업규모는 줄더라도 핵심적인 부분은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예산 규모를 반 이하로 줄여 30억 규모로 다시 재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을 맞아 K-아트 특별전을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요구가 17억 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르코공공예술사업은 일부가 다년지원으로 추진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선정되면 2023년도 리서치 2024년도 본사업으로 해서 2년간 지원을 하는데요. 2년간 약정을 맺은 만큼 매끄럽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어도 내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72페이지 하단에 1차 심의값 통보 총괄표를 보시면 세부사업별로 나와 있는데 밑에 합계를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과는 좀 다르게 순증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건 뭘까?”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관광기금사업 일부, 맨 끝에 있는 3가지 사업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이관되어 진행하게 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재교부하는 사업으로 운영되는 부분이라 예술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서 전체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향유지원 같은 경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전년 대비 114억 원 정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총액으로 봤을 때는 감액기조가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세부사업으로 보시면 많이 삭감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3페이지 이하부터는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이게 지금 최종 확정은 아닌 거죠? 저희가 조금 더 싸워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거죠? 항목별로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요. 사실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확정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거죠? 너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서승미 위원 : 이것에 대한 대응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차 심의 대응방안으로 이것만은 요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사업인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의 예산을 반으로 줄여서 재요구를 했고요. 아르코공공예술사업 같은 경우 적어도 다년간 지원 파트는 내년까지 약속했으니 지원을 할 수 있게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반적으로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특정 부분을 다시 올려달라고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게다가 지금 30억 원과 13억 원 증액 요구한 부분도 이 부분을 증액 요구하려면 다른 부분에서 그만큼 삭감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증액을 요구하려면 타 예산에서 그만큼을 삭감해서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종열 위원 : 전방위적으로 다 삭감이 되어서 특별히 어떤 부분이 아쉽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창작산실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특히 많이 삭감되었는데요. 특별히 어떤 부분이 삭감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은 지원이 적다고 해서 증액을 해야 할 판에 또 삭감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많은 예술인들이 아쉬워 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 경영전략본부장 : 현장업무보고회 때도 많은 제안들이 있었고 특히 대관료지원이나 민간공연장지원 부분에 대해 공연예술계에서 많은 요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고려해서 반영을 한다기보다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전반적으로 보조금의 규모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현재 1차 심의값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영화진흥위원회의 주요 사업비는 7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줄어들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6,0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73쪽을 보시면 2023년도 공연예술창작육성 예산이 294억 원이었는데 현재 1차 심의는 275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 증액이 된 예산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감축을 하고, 일반수용비로 직접 추진하는 기획사업들은 반영을 해 준 것입니다. 현장은 교부성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는데 이에 대한 지원을 반복하기보다는 현장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자생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구조로 전환을 하라는 것이 현재 기획재정부의 요구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서 예산이 결정되고 2024년도 공모계획을 발표할 때 현장의 서운함, 아쉬움이 너무 클 것이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과 함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팔길이 원칙의 상징이고 코로나 대응을 하느라 많이 소진을 했기 때문에 기금 적립을 위해 전입금 확대 요구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훈경 위원 : 제가 이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스타일육성지원사업, 문화예술해외교류, 공예문화산업육성 등 3개가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있을까요?

류재수 경영전략본부장 : 이 3가지 사업은 다 관광기금을 재원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한스타일육성지원은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예술위원회 이름으로 예산편성은 되지만 저희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교부하고, 문화예술해외교류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으로 교부합니다. 공예문화산업육성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교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위원회를 거쳐서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이훈경 위원 :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예술위원회 예산인 것처럼 들어가 있는 거네요?

정병국 위원장 : 예. 예산편성을 할 때 기조가 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되는 것이죠.

류재수 경영전략본부장 : 문예진흥기금이 어려웠을 때 관광기금에서 500억씩 전입을 해 줬는데 지금 상황은 관광기금이 더 어렵기 때문에 문예기금으로 편성하고 체육기금이나 일반회계 쪽에서 그 금액만큼 전입을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훈경 위원 : 저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이네요.

류재수 경영전략본부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보면 예산이 안 깎인 것 같잖아요. 1.4% 증가입니다.

김진각 위원 : 예술위원회만 보조금이 깎인다고 하면 정색을 하고 요구하여 복구를 해야 되

겠지만 국가 전반적으로 긴축재정 기조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기관들과 같은 잣대로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20%를 깎는다. 30%를 깎는다는 것이라면 예술위원회가 그 범위에 같이 들어가 삭감되는 것은 제고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술위원회가 중요한 사업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뭘까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그런 것이고 위원들도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예산이 문예기금에서 나갔지만 영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예술위원회가 올해 제 기억으로 16파운드. 그러니까 1,800억 이상을 문화 복구 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조사해서 삭감된 사업 중에서 반영하여 복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올해 처음 시도한 예비예술인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한해 추진하고 없어지면 정말 예술위원회 정책사업의 신뢰성도 깨지고 예술위원회의 위상과도 연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술과 기술 융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잘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 재정적자가 150조 원이 난다는 겁니다. 이 기조로 가면 내년에는 2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국가 예산 전체 규모가 70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150조 원 정도가 적자인 것입니다. 적자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진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회만 해당된다면 우리가 항의를 하든 뭘 하든 하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맡고 있는 분야라든지 관심 분야에서 “이것은 꼭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왜 살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절령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복사업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하는데 예술위원회가 또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여 포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71페이지 표가 있잖아요. 예산 관련 주요 이슈인데 어떻게 보면 정부의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에 맞춰서 그래도 설득해볼 수 있는 분야로 어느 분야가 있을지를 저희 실무진에서 살펴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안을 받아들여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접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네 번째 보고안건인 2023년 제3차 경영전략개선 소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정갑영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 : 예. 경영전략개선 소위원회는 77페이지에 나온 대로 7월 14일에 온라인을 병행해서 예술가의 집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날 보고 받은 안건은 경영전략 개선 및 조직개편 추진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과 50주년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논의의 주요 주제였습니다. 논의결과에 대해서는 80쪽에 논의결과 요지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날 나온 얘기

를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중장기적인 정책을 확실하게 세우고, 그러니까 비전과 정책이 서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합당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물론 경영평가에 대한 지표 같은 것도 있고 그것을 반영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8기 위원회의 비전과 전략이 드러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조직개편은 그런 방향하에 전문적인 진단과 컨설팅을 하고, 부서 워크숍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회 사무처가, 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해서 장래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것에 따른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예산이 줄면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총 실링 안에서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은 결국 정책 비전과 구체적인 세부사업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차제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비전전략 개선안으로 78쪽을 보면 목표와 과제, 세부과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냥 해 왔던 틀에서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전략목표, 전략과제, 세부과제들이 말만 조금씩 바뀌가면서 마련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부분을 보면 우리가 항상 해 온 대로 ‘예술향유 격차 해소와 불균형 해소’가 하나 들어가고 ‘문화시민 역량 강화’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증진, 인문·여가 프로그램 확산’ 등 주어진 사업들을 반영해 세부과제를 설정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화시민 역량 강화’도 우리 위원회의 전략과제가 되는 것인지? 지금 이렇게 총 예산이 줄어든다면 어떤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어떤 부분은 더 투자를 하거나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설정을 해야 될 시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무처가 아까 말씀드린 논의구조를 거쳐서 확정을 짓고 그것에 따라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조직개편 구조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50주년 기념사업 문제는 지금 백서를 만드는데 거기에 양경학, 양효석 두 분은 저도 아는 분들입니다만 오랫동안 예술위원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술위원회 진행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50주년 심포지엄과 다큐멘터리 제작 문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은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게 좋겠다. 예술위원회에 관해서, 아니면 예술위원회의 장래 문제에 대해서요. 그래서 새로운 발제자 또는 새로운 토론자. 어디에 있겠죠. 한번도 의견을 내지 않은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새로운 얘기를 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온 길과 나아갈 길을 구상하는 문제에 대해 오피니언 리더들의 라운드테이블 같은 것도 현장 중심으로 진행하되 신선한 의견을 줄 수 있는 분들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제작 문제는 KBS에 맡겼는데 방영일이 일요일 저녁이라고 합니다. 난감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김진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이 알리는 게 좋겠다. 그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고사항은 정책연구를 사무처에서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문화 예술위원회의 역할 진단과 향후 과제라는 내부형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6개 진단영

역과 17개 전략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전과 전략에 대한 충분한 고려 후 이루어져야 하고요. 이게 된다면 발간주체는 경영전략개선 소위원회 명의로 발간을 진행하겠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통해서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 경영전략개선 소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정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심의 체도를 개선하고 있고 각종 사업들을 통폐합하는 작업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조직개편도 아울러서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는데요. 정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한 것은 비전과 전략이 무엇인지? 그것에 따라서 사업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통폐합을 할 것이며 조직은 어떤 방향으로 통폐합을 하고 만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결국 경영전략개선 소위원회에서 비전과 전략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시면 아웃소싱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그것을 하고요. 지금 현재 실무진에서는 심의 체도를 바꾸고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하는 작업 그리고 사업들을 통폐합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시해 주셔야 그것에 맞춰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갑영 위원 : 일단 사무처에서 어떤 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요?

류재수 경영전략본부장 : 저희가 그때 논의를 위한 초안을 구성한 것이고요.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하기 위해서 초안을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우리 정갑영 위원장님이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 주셔야죠. 경영전략개선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셔야요.

정갑영 위원 : 알겠습니다. 사무처에서 기본안을 그때 마련해 주신다고 했어요.

류재수 경영전략본부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을 하셔서 빨리 논의를 하시고 그에 맞춰 향후 심의제도, 사업, 조직까지 다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정갑영 위원 : 빨리 초안을 주시면 그 초안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초안을 주십시오.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러면 네 번째 안전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접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으로 다섯 번째 보고안전인 2023년 제5-6차 예술후원활성화 소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김진각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예. 5차 회의는 6월 30일에 있었고 6차 회의가 지난 22일에 있었습니다. 안건은 크게 2가지였는데요. 하나는 9월 23일에 열리는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 행사와 관련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가 예술나무 후원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2가지 안건을 놓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사무처에서 이후에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나눈 내용 중에 하나가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이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은 너무 아쉽지 않느냐? 그리고 대국민 기부문화의 시발점 행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행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기업의 파트너십 관련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기업은 후원을 하는 입장이고 돈을 내는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기 마련이기 때문에 후원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기업의 후원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기업의 파트너십을 강화시킬 명분으로 삼을 수 있겠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에서 티켓을 산다는 의미가 곧 기부라는 행위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후원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한 방안들이 뭘까?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는데요. 78페이지에 있는 관객 정보를 확보할 필요성, 그리고 티켓을 구매한 관객들한테도 계속해서 기부의 중요성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페스티벌이 거의 확정되어 가고 있는 마당인데 페스티벌의 메시지가 분명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예술후원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이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 다 반영하기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술후원이라는 상징성을 갖기 위한 제목들을 서브타이틀도 좋고 슬로건도 좋고 영상 등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사전 기자간담회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한 일부 매체의 홍보보다는 전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의 취지를 미리 알림으로써 이 행사의 확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 자체가 가족 단위의 행사인데 아무래도 앞으로 문화예술 후원, 기부의 민간 주축이 되는 것이 MZ세대이기 때문에 MZ세대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MZ세대 서포터즈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찾아봐야 한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논의안건은 예술나무 후원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발굴 문제인데요. 지금 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나무는 사실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후원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조금 더 커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사례로 극단 ‘큰들’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경남 산청이라는 작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극단인데 이 극단이 2,000명 정도의 정기후원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술위원회 보다 훨씬 더 많은 정기후원자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사례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 극단 ‘큰들’이라는 작은 지역의 극단에 어떻게 2,000명이라는 사람이 후원을 하고 있을까? 그것을 조사했더니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후원을 하게 되면 후

원을 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또 다른 사람을 후원자로 끌어들이 수 있는 일종의 시스템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송시경 사무처장님이 여기에 몇 십 년째 후원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끝난 다음에 부연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부분. 사실 돈을 내는 사람들이 내가 낸 기부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 예술나무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부한 사람들에게 공유할 내용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현재 예술나무 후원자 확대에는 한계가 있고 이것을 조금 더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체제에서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인센티브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를 마칠 것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김진각 위원님 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단체에 한국메세나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후원자 관리나 후원내역에 대한 부분들은 메세나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정병국 위원장 : 한국메세나협회에 소속된 기업들이 있고, 한국메세나협회는 별도의 사무국이 있어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우리하고는 연계사업을 하는 겁니다.

배은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각 기업마다 ESG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ESG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후원을 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사회적기여 차원에서요. 기업의 ESG를 우리 예술나무 후원으로 연계했을 경우에 어떤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을까요. 기업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없을까요? 어차피 ESG사업은 해야 되는 건데요. 그것을 예술나무에 후원 했을 경우 다른 분야에 비용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기업의 입장에서 효과가 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어차피 해야 하는 것이니까 우리 쪽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고 연구를 해 보시죠.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조폐공사 사장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조폐공사에서 화폐를 안 쓰니까 화폐를 찍어낼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부대사업들이 기념 주화를 만들고 기념 메달을 만드는데 중점을 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후원자들에게 일정 후원 단위가 되면 그런 메달을 준다거나 인증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제가 조폐공사의 마케팅 담당 본부장의 연락처를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드릴 테니까 다른 데에는 어떤 사례가 있고 활용할 측면이 있으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섯 번째 보고 안전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여섯 번째 보고안건인 2023년 제4차 윤리·인권 소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장미진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미진 위원 : 예. 회의안건은 2가지였고요. 먼저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를 지금 예술극장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로 아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나 그 외에 젊은 예술가들과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전에도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장애 예술인 예술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하기로 했는데요. 배은주 위원님께서 애를 써 주셔서 날짜가 잡혔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9월 8일로 되어 있는데요. 9월 7일 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발제자는 미정인데요. 더 정확하게 정해지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분들이 와서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우리 예술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장미진 위원 : 예. 위원장님 일정도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날 꼭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 위원장님 축사가 있는데요.

장미진 위원 : 윤리인권 소위원회와 김예지 의원실이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알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미진 위원 : 아까도 예술과 기술 매칭사업에서 보니까 장애 예술인 단체에서 지원하는 게 3~4건이 있는데 하나도 안 되었던 거고요. 장애 예술인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정숙 위원 :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극장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잘 정리해 주셨고요. 꾸준히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92쪽에 보면 '사회적 기억 포럼 추진방법 재고 필요'라고 아마 관련 논의를 하신 것 같아요. 선언적 행위만 하기보다는 창작자들과 끊임없이 이야기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극장의 본래 역할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조차도 결국은 극장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윤리·인권 소위원회에 하자면, 사회적 기억 사업을 예로 들면 11월에 표현의 자유주간 사업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작년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체가 돼서 20억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술위원회를 비롯한 문화예술기관들이 협력해서 같이 해보자고 TF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개최 시점이 다가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더라 사회적 기억 사업을 못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주간에 사회적 기억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었던 것인데 없었던 것으로 유야무야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예술위원회에서는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 기억 사업의 일환으로 정책포럼을 소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1월에 진행되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되면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도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에서 사실 이런 사업들을 기획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적어도 우리가 촉구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작년에도 한다고 그랬다가 못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에는 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 예술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촉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 나름대로도 사회적 기억 포럼을 극장에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소위원회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을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사회적 기억 사업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1월이면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서 11월에 추진을 해야 할 텐데요. 갑자기 10월에 준비를 한다거나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를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한 번쯤, 이 정도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니 11월에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 주시고 논의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어떻게 독려 혹은 촉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일곱 번째 의결안건인 2023년 심의제도운영개선 TF 7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장인주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주 위원 : 저희 심의제도운영개선의 핵심이라고 해야 할 심의위원후보단 풀 재구성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7월 7일에 토론회가 있었고요. 그날 나온 의견들과 그동안 저희가 6차까지 회의를 하면서 결정된 내용 등을 반영해서 지난 7월 20일부터 홈페이지에 후보단 개선 및 모집 공고가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제가 링크를 보내드린 것 같아요.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 풀 안에 계셨던 2,000명정도 이메일과 문자로 다 공지가 나갔고요. 그중에 800명 정도가 이미 재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8월 6일까지 자천, 타천 모두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 상황으로는 지원상태가 나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10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주변에 심의위원 풀에 있었으면 하는 분들을 많이 추천해 주시고 의견을 주셔서 풍성한 후보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장르대표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 추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실 텐데요. 그 외의 위원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워크숍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 설명이 부족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차 회의를 했고요. 그것들을 반영해서 지금 후보단을 모집 중인데요. 모집이 8월 6일에 마감되면 모집한 위원님들과 기존에 전담심의위원을 했던 분들을 추천해서 예비선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예비선정위원회는 장르별로 7개 장르가 진행되는데요. 8월 17일부터 시작이고요. 위원장님을 제외한 11명의 위원님들 모두 참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

문에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면 장르별로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선정위원이
잖아요. 그래서 그 선정위원회에서 좋은 모집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비선정위원회에서는
적격성 검토를 하고요. 예비선정위원회에서 가부는 결정하지 않아요. 8월 6일까지 10일 정
도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주변에 최대한 많이 홍보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길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보고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별
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이것은 이미 다 숙지가 되신 것으로 알고요.

정갑영 위원 : 3년 임기제라는 건 뭐니까? 그전에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정병국 위원장 : 했어요.

장인주 위원 : 워크숍 때 했어요. 임기제를 두자. 그동안은 임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정병국 위원장 : 임기가 없어서 계속 누적되다 보니 2,000명까지 왔는데요. 그러다보니
그 사이에 자격 문제 등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냥 심의위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요. 심지
어 어떤 사람들은 명함을 파서 “예술위원회의 심의위원이다.”라고 다니는 겁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런데 임기를 두게 되면, 일단 3년 동안은 고정적인 거잖아요?

정병국 위원장 : 그렇죠.

정갑영 위원 : 그러면 그 풀에 들어가지 못한 인원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불만이 또 생길
겁니다. 공정성 시비는 또 나옵니다.

장인주 위원 : 그러니까 이번 풀에 자천, 타천 모집을 할 때 최대한 많은 분들이 들어오서
야죠.

정갑영 위원 :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임기제라는 것을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한 번씩 점검하지 않으면.

정갑영 위원 : 차라리 이 문제를 1년 해 보고.

장인주 위원 : 3년을 해 봐야죠. 3년으로 정했으면요. 풀 운영은 3년을 해야죠.

정갑영 위원 : 아니죠. 이렇게 3년씩 두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인주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 때도 논의를 하기는 했는데요.

정갑영 위원 : 워크숍은 워크숍이고 제 의견은 이렇게 못 박아두면 틀림없이 시비가 생긴다는 거죠.

장인주 위원 : 어떤 시비가 생길까요?

정갑영 위원 : 못 들어간 분들은 3년이나 못 들어가는데요.

장인주 위원 : 3년 후에 들어오면 되는 거죠.

정갑영 위원 :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정병국 위원장 : 잠깐만요. 어떤 위원회든 어떤 직위든 간에 임기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기간을 정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라 말아라가 아니고 다 기회를 줬다는 말이죠. 기회를 줘서 응모해서 심의위원이 됐어요. 심의위원이 됐으면 3년 기한이면 3년 동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간에 내가 등록을 못 했는데 “왜 나는 안 해줘?”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위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3년 임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갑영 위원 : 과거지만 저도 심의를 해 봤고 위원회 때도 심의를 해 봤는데 통상 1년 단위였어요. 아마 그런 원칙 때문에 지난번에도 3건 이상은 못 한다고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냥 2,000명을 풀로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3년으로 상당한 자격을 주는 것인데요.

정병국 위원장 :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죠.

정갑영 위원 : 자격으로 느끼는 거죠. 자천으로 위원회에 등록해도 그것으로 명함을 판다는 건데요. 심의위원 임기로 3년을 보장받으면 이것은 이것대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해요.

장미진 위원 : 모집공고에 이미 3년 임기제로 나가서 이것은 일단 시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후보단이 3년이고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심의위원은 해당 사업에 대해서만 1년씩 하는 겁니다.

정갑영 위원 : 1년씩 한다는 것은 뭐죠?

정병국 위원장 : 한번 지명이 되면 1년을 하는 거죠. 선정이 되면요. 그중에서 또 심의위원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정갑영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그 풀 안에서 1년씩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1년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건에 상관없이 풀로 하는 건가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지금 임기가 있는 건 후보단의 임기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후보단에 있는 것이고요.

정갑영 위원 : 나도 아는데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그중에서 적격자만 해당 사업을 심의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당연히 매년 바뀌겠죠.

정갑영 위원 :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 전에는 3건 제한을 두고 했잖아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횟수 제한이 있었던 건데요.

정갑영 위원 : 지금은 횟수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지금은 어쨌든 1년에 한 번만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갑영 위원 : 1년에 한 번?

서승미 위원 :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시고 나면 못하는 건가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그해에는 못 하시죠.

서승미 위원 : 그게 예비선정심의회원 외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예.

서승미 위원 : 그렇습니까? 그것은 몰랐네요.

장인주 위원 : 예비선정위원은 그해에 심의를 안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예비선정위원회는 매년 있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우리가 심의위원을 재구성하면서 예비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심의를 올해 안 하는 것이고요. 그 외 풀에 있는 분들이 모두 심의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풀이 어느 정도로 구성될지도 모르겠어요.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3년이라고 못 박았으니까 3년 자격을 가진 풀이 많아서 3년 동안에 개인은 1년씩 하는 거라면 납득이 갑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3년을 둔 것은 우려하시는 대로 그러한 취지로 한 것은 아니고

요. 3년마다 개편을 하겠다는 거죠. 그냥 무한대로 놓으니까 그것을 거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정갑영 위원 : 저도 거르는 건 백 번 동의를 하는데요. 3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다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정갑영 위원 : 심의위원으로 어쨌든 3년 자격을 부여받는 것인데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어쨌든 1년이죠.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50명의 풀을 내놓고 15명씩, 15명씩 해서 1년, 1년으로 간다면 납득이 갑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한번 선정된 사람은 그 다음에는 못 하니까요.

정갑영 위원 : 그 다음에는 못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한다면 2년을 하는 거란 말이죠.

장인주 위원 : 아니요. 이미 워크숍에서 다루어졌던 뺄이라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정갑영 위원 : 3년인데 내가 1년을 했어요. 그다음에는 쉬었어요. 그다음에는 다시 하면 2년을 하는 거죠.

이훈경 위원 : 임기는 3년을 가지지만 그 안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건 1번만 할 수 있고 한번 하게 되면 1년만 유지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다시 3년 동안 임기를 받을 심의위원을 재편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분들을 선정하는 게 예비선정위원회이고 1년 동안 활동하시는 분들이고요.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1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논리적으로, 미안합니다. 논리적으로 할 것을 왜 3년 임기를 줘요.

정병국 위원장 : 선정될지 안 될지를 모르니까요.

이훈경 위원 : 3년이 나온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한번만 심의를 하고 빠지면 그 사업과 작품이 사후에 어떻게 커 가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3년 정도는 본인이 심의했던 사업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관점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시다.

정갑영 위원 :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책임 문제가 따릅니다. 3년 동안

보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3년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결과에 대한 책임 부분이 겸비되어야지 논의가 맞는 것이지, 3년 동안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아니죠. 만약 별 의미가 없거나 잘못되거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는 책임심의제도로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년 임기를 갖되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을 한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3년 동안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책임심의제도가 되는 것인데요.

이훈경 위원 : 들여다보겠다는 개념이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본인이 심의했던 작품들이 어떻게 커 가는지는 관심 있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최소한의 장치. 장치라는 단어도 이상하지만요.

정갑영 위원 : 그것은 개인적인 관심으로 끝나야지 장치가 되거나 제도가 되면 책임이 따라가야 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규정된 게 없고요.

장인주 위원 : 2009년에 심의위원후보단 풀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올해까지 14년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분들의 임기가 없다보니까 2,000명이 쌓였는데 지금은 재구성 필요한 단계가 된 겁니다.

정갑영 위원 : 알아요.

장인주 위원 : 그런데 요지는 풀에 2,00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들이 누가 심의했는지 공개가 되었을 때 항상 전문성 문제가 거론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풀에 계신 분들의 전문성이나 공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14년이 되다 보니 현장성 부분에서 기존에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최근에 활동을 오랫동안 안 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예비선정위원회를 거치고 선정을 하면서 한 번 더 개선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임기를 두고 3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현장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도 있고, 3년 뒤에 보면 현장에서 활동을 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임기제를 두고 그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자는 취지고요.

정갑영 위원 : 좋습니다. 백 번 다 동감하고요. 다만,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정리를 하죠. 임기는 3년으로 하는데 그 임기라는 개념은 3년 동안 1번 심의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장인주 위원 :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 동안 한 번 선정된 심의위원은 1년 하는 거죠. 1년을 위해서 3년 임기라는 얘기를 두고 가급적이면 많은 풀을 두는 거죠.

장인주 위원 : 예. 그러려면 8월 6일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많이 독

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한을 두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장인주 위원 : 예, 저희가 아직 확정하지는 못해서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TF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고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미 위원 : 예비선정위원회를 하기 전에 그것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원 횟수나 방법이 정해지면요. 어느 정도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그날 분명히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조금 급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정리해 주시죠.

장인주 위원 : 예.

김진각 위원 : 전담심의위원에 대해서 여쭙보려고 하는데요. 기간이 2022년과 202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임기도 아니고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나요?

장인주 위원 : 예.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전담심의위원은 그전에 풀에 없었던 분들이 전담심의위원으로 있었어요. 그분들이 현장성이나 전문성이 좋다고 해서 위원님들께도 같이 추천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보내드린 것이고요. 만약 위원님들이 합드시면 사무처에서 같이.

김진각 위원 : 그게 아니고요. 임기를 보니까 대부분이 2022년에 위촉된 분들입니다.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2022년에 그분들은 끝난 겁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러면 자격이 계속 살아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다시 풀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전담심의위원은 해당 사업에 대해서만 하시는 겁니다. 해당 연도에 해당 사업.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2022년과 2023년으로 되어 있으면 해당 사업이 걸쳐서 있는 사업.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연도가 걸쳐서 있는 사업으로 창작산실 같은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예심, 본심으로 나눠 심의하는 사업들이 있어서요. 그것은 2022~2023년 동안 하지만 사실 사업이나 평가는 끝난 거죠.

정병국 위원장 : 전담심의위원은 한 번밖에 못 하는 겁니다.

서승미 위원 : 하나 궁금한 건 앞으로 전담심의위원은 없는 건가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예.

서승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러니까 전담심의위원 자체가 없어진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심의위원 풀로 다 들어오잖아요. 제도 자체는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또 전담심의위원 추천에 의해서 다시 3년의 시간이 지나면.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그게 아니고요. 심의위원 풀을 최대한 탄탄하게 꾸려서 심의위원 후보단에서 적격자를 심의위원으로 구성하자는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3년 동안 계속 풀에 들어오면서 누적된 사람들 2,000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숫자는 많은데 막상 어떤 사업의 심의위원을 선정하려고 하면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전담심의위원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풀 외에 사람들을 전담심의위원을 만들었는데 그 자체도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누적해 오니까 우리가 꼭 모셔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저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에 안 들어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심의를 해?”라고 하는 분들이 현장에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심의를 받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분야별로 심의위원으로 모셨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안 들어오시거든요. 이번 기회에 후보단을 잘 구성해 놓으면 전담 심의위원제를 안 뒤도 충분한 풀을 만들어놨으니 일찍을 가지고 심의를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인 것이죠.

김진각 위원 : 그러면 2022~2023년 전담심의위원이 있고 그 외에 더 추가로 등록을.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전담심의위원은 끝난 겁니다. 지금 전담심의위원은 2022년도에 했던 사업이 2023년도에 걸쳐서 있는 것이고 그 한 사업으로 끝난 겁니다.

장인주 위원 : 창작산실과 대한민국공연예술제 2개 사업만 전담심의위원제가 있었어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그 사업이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에 오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연도를 쓰다 보니까 2022~2023으로 쓴 것이죠.

송시경 사무처장 : 제가 조금 보태면 창작산실 같은 경우는 올해 선정된 사업이 우리 아르코예술극장이나 다른 극장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맨 마지막에 발표하는 게 2024년 3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해당연도 다음 해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결정했던 사업들이 중간에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겼을 경우 기존 전담심의위원을 다시 모집해서 이 부분의 자격요건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활동하는 것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김진각 위원 : 어쨌든 자격이 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8월 6일까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병국 위원장 : 그렇죠.

김진각 위원 : 전담심의회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병국 위원장 : 예.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갑영 위원 : 지금 이 안건 말고 한 가지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훈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도가 책임심의거든요. 연극이라고 하면 연극위원회와 사무처의 연극담당자가 심의를 담당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정을 보면서 리포터도 내고 책임을 지면서 가는 방향은 어떤가? 지금은 아니지만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병국 위원장 : 과거 책임심의제도가 있었는데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국정감사 때마다 그게 문젯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정성 문제가 논의되다 보니까 이 제도로 바꾼 겁니다. 이 제도가 상대적으로 그때보다 말썽이 덜 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심의위원들이 계속 누적되고 교체되거나 정비가 되지 않으니까 현장에서는 그 심의위원들 때문에 나는 못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차제에 그것을 한번 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정비를 하자고 해서 이 제도가 나온 겁니다.

정갑영 위원 : 권한은 안 주고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있으니까 사무처에서도 객관적으로만 보이게 하는 게 발생하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말씀하신 게 맞죠. 결국 심의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하던데요. 지금은 사업 건수도 워낙에 많고요. 그래서 그것이 감당이 되질 않을 겁니다.

장인주 위원 : 지금 책임심의제도가 있었던 당시에 비하면 심의가 3배, 4배가량 더 많아요.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사무처가 나중에 보고를 하는 게 우리 인력 갖고 감당이 되지를 않아요.

장인주 위원 : 아무튼 이번 TF의 중요한 취지는 책임심의제와 풀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정갑영 위원 : 추후에 한번 논의를 하고요.

장인주 위원 : 이번 개편을 하면서 “책임심의제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면 “풀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책임심의제와 풀제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그 절충안을 찾는 것인데, 완벽한 심의제도라는 것은 없죠. 하지만 최대한 보완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이런 점도 현장에서 의견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해주

세요.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보고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여덟 번째 보고안건 2023년 뉴서울CC운영개선 TF 3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홍성태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성태 위원 : 예. 1차 TF는 3월 2일에 있었고 운영계획 일정을 협의했고요. 2차 회의에서 컨설팅 용역 응찰 업체가 없어서 단일 업체를 뽑았습니다. 삼정회계법인(KPMG)이 꽤 좋은 회사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5월에 현장 실사도 했고요. 3차 회의는 지난주에 1차 중간보고로 했습니다. 96페이지의 성과를 보면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매출액이 60.4%가 오르고, 내장객도 오르고, 회원제 평균 이익도 좋아졌는데 코로나 기점으로 당연히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재무구조 진단을 하니까 유동비율도 좋고 영업이익율도 좋고 개선실적이 모두 좋은 것으로 나온 겁니다. 다만, 우리의 객단가 수준이 좀 낮은 것 같다고 해서 올렸으면 좋았는데 공공기관이라서 올리기가 어렵고 중과세에 따른 세금 때문에 실적이 안 좋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1차 보고를 발표했을 때 KPMG가 열심히는 했지만 자료수집 정도였어요. 현재 성과가 좋다는 것만 보여지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이라서 문제가 있다.”, “세금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만 문제로 얘기하고 있지만 타업체에 비하면 성과가 썩 좋은 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8월 24일에 개선안을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9월 초에 3차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3차 보고를 빨리하는 것보다 개선안을 제대로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니 3차 보고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된 분석과 개선안을 도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보고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보고안건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마지막으로 2023년 예술과기술융합기반구축 TF 6차 회의결과에 대해서 정종열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 : 예. 예술과기술융합기반구축 TF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TF 위원장인 김미라 위원님의 부재로 제가 대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7월 21일 2가지 안건으로 6차 회의를 했습니다. 먼저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나와서 같이 공유를 하였습니다. 3개월에 걸쳐 융복합 공연장 환경 조성을 위한 공연장 구축 제반사항을 검토했고 공연장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현황 및 기술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기본설계 및 개략적인 공사비 산출까지 하였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검토해 주시면 되고요. 기본계획은 자료 9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사업

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7단계로 2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지만 현재 준비단계인 1단계에서 2024년 예산안에 미반영됨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1년 정도 휴관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23년 APE캠프를 개최합니다. 8월 31일부터 2박 3일간 5개의 주제로 기술과 예술 분야에서 각 50명씩 총 100명의 캠프 참가자가 리서치트립을 위한 발표를 하여 팀을 선정하게 됩니다. 작년에 지원자들과 해외 기관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을 보이는 등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해외 리서치트립 후보 지역도 늘어났고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로 전날인 8월 30일에는 아르코예술기술융합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2022년 APE캠프 국제리서치트립기관 관계자 초청 기조 강연 및 기술융합지원 선정작품 발표와 시연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은 엄민영 융합예술부장님이 배석해 있으니까 직접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보고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미진 위원 : 극장은 예산 문제 때문에 휴관을 한다는 건가요?

정종열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어야 그다음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리모델링을 시작하게 되면 휴관을 해야 되니까요.

정병국 위원장 : 지금 100억이 드는 거잖아요? 리모델링비가 100억이 드는 건가요? 어느 분야가 제일 많이 드는 건가요?

엄민영 융합예술부장 : 리모델링 자체의 소음이나 기반 문제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과 신규 시설장비 구입비가 들어갑니다.

정병국 위원장 : 새로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요.

엄민영 융합예술부장 : 예. 사실상 리모델링 비용이나 신규 증축이나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리모델링을 전제로 한 조사였기 때문에 신규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산정되지 않았습니니다.

정종열 위원 : 보고서와 기술 관계자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기초공사라고 할까요. 자체를 움직이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요. 구조적으로 소리나 방음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정종열 위원 : 거기에다가 음향이나 기술적인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넣다보니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본 보고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들의 의견을 들어 접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른 보고안건이 있습니까? 포레스트 뮤직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드려야 하잖아요?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예. 아까 예술후원활성화 소위원회 결과 보고 뒷부분에 붙어 있는 데요. 보고를 드릴까요?

정병국 위원장 : 예. 보고해 주시죠. 간단하게 하세요.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예. 87페이지입니다.

추진일정은 현재 9월 23일 14시부터 21시까지로 예정되어 있고요. 장소는 서울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만 명 정도 관객을 예상하고 있고요. 관람층은 2030세대와 가족단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는 1인당 3만 원을 생각하고 있고요. 예상수입료는 2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2024년도에 기부금 처리를 해서 기획 기부금 프로젝트 예산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페스티벌 운영일정은 표로 같음하겠습니다. 14시부터 박기훈 킨텟부터 마지막 조수미 선생님까지 7개 팀을 섭외 완료하였고요. 그다음 예술부스와 기업부스 그리고 식음료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출연진에 대한 정보와 프로필은 다음페이지인 8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외부스 운영(안)은 그 기간이 문학주간이라서 문학지원부와 문화다양성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외부협력 부스로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단법인 '오늘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동에 있는 '언더스탠드 에비뉴'의 업사이클링 작품 전시 및 수익 판매와 관련된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예술가 작품을 주로 전시하고 있는 '디스에이블드'라는 단체와는 전시와 관련된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음료부스는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8개 정도의 부스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용역업체 쪽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결정되는대로 확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지난 위원회 전체회의 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아트 포레스트 관련해서 슬로건이라든지 서브타이틀의 필요를 말씀하셔서 “예술이 쉽이 되는 시간”이라든지 “Who wants?”라고 해서 “후원”이라는 한글과 “I want!” 단어를 조합해서 슬로건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까 예술후원활성화 소위원회 김진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전 기자간담회나 언론 홍보에 대해서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후원 유치는 저희가 2억 2,0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3개 기업에서 약 9,000만 원 정도 유치가 완료되었고요. 계속해서 여러 기업체들과 협의하여 타진하고 있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8월 11일에 티켓판매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9월 초에 기자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표로 같음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궁금하신 것이나 의견을 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서승미 위원 : 출연진이 확정된 건가요?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거의 섭외를 완료했구요.

서승미 위원 : 이전에도 예술후원활성화 소위원회에서 출연진 자체가 예술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것이니만큼 연관성이 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위원회 전체회의 때 출연진은 확인을 못 했죠? 이것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훈경 위원 : 지난 전체회의 때도 거론돼서 아마 의견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서승미 위원 : 물론 MZ세대를 겨냥해서 저희가 많은 이목을 끌고 가려는 부분이 중요한 것은 맞는데요. 이런 부분이 대행사에 잘 전달이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일단 출연진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섭외했구요. 매표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단순히 저희가 페스티벌만 하는 게 아니라 대중음악부터 클래식까지 연계를 통해 다양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 관계상 다양한 출연진을 확대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요. 7개 팀 내외에서 섭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구요.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직접 이것을 기획하신 실무자가 답변을 해 보시죠.

전주희 문화예술후원센터 대리 :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예술후원센터 전주희 대리입니다. 제가 방금 접속을 해서 위원님의 질문을 정확하게 듣지 못했는데요. 지금 라인업 중에 대중음악 가수들의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사무처의 생각은 페스티벌 취지를 전달하려면 우선 관객을 불러 모으는 게 선행되어야 하고요. 그래야 저희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페스티벌이 이전에 역사나 인지도가 없는 상황에서 1만 명이라는 관객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이럴이 일어날 수 있는 아티스트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섭외를 진행했구요. 그래서 일단 본 페스티벌은 문화예술 후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선포식의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잘 개최되면 비슷한 형태로 연례행사를 진행하고 앞으로 저희 예술위원회에서 지원을 했던 아티스트들을 섭외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티켓과워도 있어야 하니 출연진에 대한 라인업은 충분히 이해를 했구요.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예술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과 함께 콜라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대안으로 무대와 무대 전환 시간이라든가 이벤트타임 등 그 사이라도, 보통 이런 페스티벌은 메인무대가 있고 서브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무대에서 주 출연진이 공연을 하고 무대 전환을 할 때 서브무대에

서 버스킹이나 일반 아마추어들이 함께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잖아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전주희 문화예술후원센터 대리 : 무대 안에서 서브스테이지를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한 무대에 서게 되잖아요. 앞에 재즈부터 국악, 대중음악, 뮤지컬, 오케스트라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무대전환 시간에 그 무대를 활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무대전환 시간에는 정말 다음 무대를 위한 악기세팅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무대를 활용하기는 어렵고 다만, 전광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극장운영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아르코댄스필름을 상영하는 방향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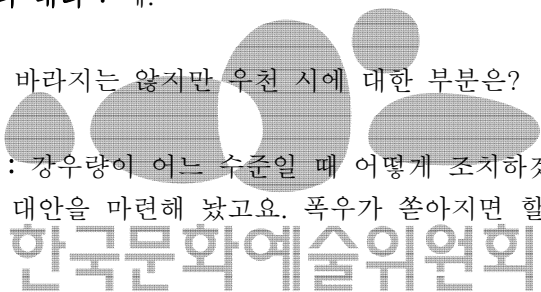
배은주 위원 : 알겠습니다.

정종열 위원 : 그러면 전체가 돛자리석이고 위에 천막도 없이 그냥 오픈되어 있는거죠?

전주희 문화예술후원센터 대리 : 예.

정종열 위원 : 그러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우천 시에 대한 부분은?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강우량이 어느 수준일 때 어떻게 조치하겠다, 가랑비일 때는 우비로 대처하는 등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 놨고요. 폭우가 쏟아지면 할 수 없이 취소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열 위원 : 9월 중순부터 태풍이 오는데요. 그래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은주 위원 :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야외의 공연장이잖아요? 불특정다수가 관람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티켓을 구매한 관객과 그 주변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관객들을 어떻게 분리해서 티케팅한 관객을 무대 관객석으로 유치할 수 있을지? 그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펜스를 칠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야외공연을 하는 전용 야외공연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기존에 무대가 있고 야외 공연을 주로 많이 하는데 우리 페스티벌 전날에도 야외 공연을 합니다. 그 무대를 연결해서 쓰도록 협의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펜스도 다 있고 안내원이 있고 입장하는 곳도 따로 있습니다.

홍성태 위원 : 이게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우리 예술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나 위원장님의 인사는 프로그램 어디쯤 들어가면 좋을까요?

정병국 위원장 : 인사는 없습니다. 이런 데에 나가면 욱먹어요.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예술위원회에 대한 부분과 후원에 대한 부분은.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하는데 축사는 전혀 없고요. 그냥 음악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취지로 페스티벌을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자막과 영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3만 원짜리 티켓을 사면 그것으로 끝날 사람은 끝나고, 후원자로 등록하겠다고 하면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일단 데이터를 우리가 많이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원자가 되면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든지 해서 회원을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정중열 위원 : 전석 돛자리 3만 원도 좋지만 보통 그런 공연을 하면 앞에 의자를 놓거든요. 그래서 의자에 앉는 석은 조금 더 비싸게 해서 앉고요. 그 장소도 아마 그렇게 세팅하는 행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그것도 고려를 했는데요. 이 콘셉트 자체가 가족단위로 나와 공연에서 즐기는 콘셉트로 가기 때문에 의자를 놓거나 하는 것은.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요즘 자라섬재즈페스티벌 같은 경우가 좌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가서 자리를 잡고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하는데 보니까 좌석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가서 자리를 잡아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1998년도에 미국에 가서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저녁에 하는 공연인데 아침부터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거기에서 놀다가 공연을 보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됐어요.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을 보면 새벽부터 가서 자리를 잡고 하루 종일 거기에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런 취지로 운영하게 되면 의미 있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진각 위원 : 저희 예술후원활성화 소위원회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사실 행사 자체가 이것을 왜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가을에 굉장히 많은 페스티벌이 있고 콘서트가 있는데 여기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전달이 되려면, 적어도 예술위원회가 얻어낸 첫 번째 행사고 예술후원에 대한, 기부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확산하기 위한 행사라는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하거든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담을 거냐?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이라는 메인 타이틀 위에 아니면 어떤 식으로 담을 거냐가 분명해져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아티스트 라인업이 다 결정되었지만 사실 예술위원회와 접점도 있고 지명도도 있는 그런 순수 예술인들이 아쉬워요. 없잖아요. 조수미 씨도 예술위원회와 접점을 찾으려고 하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술위원회와 접점을 발견할 수 있는 아티스트 2명 정도는 여기에 끼워 넣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뭔가 구색도 갖출 수가 있고 명분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기간 동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병국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요. 보고안건 말고 또 다른

말씀이 없으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23년도 8월 위원회 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사무처장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회의자료 105페이지를 보시면 8월 달력이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 금요일이 25일입니다. 그래서 8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좋습니다. 8월 위원회 전체회의는 8월 25일 오후 2시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6. 폐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이상으로 제360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27분 회의 종료)

